

高3 보다 많은 수시정원... “불균형 구조, 기회로 삼아야”

수시 모집인원 첫 역전 현상
대입 자원 1만5824명 부족
“올해 수시공략, 대입 기회”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입학 정원과 지원자의 역전 현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고3 학생 수가 대학 및 전문대의 수시 모집인원보다 적은 것은 올해가 사상 처음이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입 수시 지원자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은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통계청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산출한 대입 가능 자원은 47만 9376명이다. 2019년 기준 대학입학 정원(고등 교육법상 대학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서 원격대학 등 제외)은 49만 5200명으로 대입 자원이 1만 5824명 모자란다. 지난해 50만 1616명이던 고3 학생 수가 1년 만에 12.7%인 6만 3666명 줄어들면서다.

문제는 이런 추세는 갈수록 증폭된다



대입 배치표 살피는 수험생들

/뉴스시스

는 점이다. 입학 정원이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24년에는 대입 가능 자원이 37만 3470명에 그쳐 미달 숫자가 12만명까지 늘어난다.

이처럼 올해 고3 학생은 수능 도입 이래 최저로 전망되지만, 대학 모집인원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올해 대학 정원 감축 움직임은 사실상 사라졌다. 대학 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대입 정원은 48만 470명으로 2018년의 48만 4775

명 대비 4305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 기간 전문대 정원은 5108명 감소했지만 4년제 일반대의 경우 오히려 정원은 803명 늘어났다. 대학구조개혁 2주기 사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가 감축 권고 인원 목표를 1만명으로 잡았던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2021년 3주기 평가진단에서 정원 감축 권고를 아예

없애고 감축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부실·비리대학을 가려내는 역할만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재 수준의 학생 수 감소만으로 대입 전반의 미달 현상을 논하기 어렵다. 현실에선 고3 재학생 외에도 대입에 도전하는 졸업생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올해 약 13만명의 기졸업 재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상위권 대학은 아무리 고3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모집인원보다 지원자가 적은 구조가 되기 어려워 신입생 충원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도 서로 다른 양상이다. 졸업생 응시자는 주로 정시 전형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크게 줄어든 재학생 수와 달리 졸업생 응시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소재 대학이나 전문대학 현장에서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

을 것으로 우려한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2021학년도 모집인원 가운데 수시 선발 비중이 87.3%에 달한다.

강원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 내 고3 학생 중 대부분이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을 원하고 있고, 도내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편입이나 반수를 통해 지역을 벗어나려는 학생들이 많다”라면서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이런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반면, 올해 대입에 도전하는 수험생이라면 이러한 불균형 구조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라는 조언도 나온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학령인구가 올해까지는 질벽 수준으로 낮아 지지만 내년에는 다시 반등한다”라면서 “내년부터는 주요 대학 중심으로 정시 비중이 크게 늘어서 올해 고3에게는 모집 비중이 큰 올해 수시가 대입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잡코리아,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16일 한미약품·수협은행
17일 우아한형제들·AJ기업

한미약품,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수협은행, AJ기업은 어떤 인재를 신입사원으로 채용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잡코리아가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잡코리아는 송파구청과 함께 16~17일 양일간 하반기 신입 온라인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송파구청이 주최하고, 잡코리아가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채용설명회에는 한미약품, 우아한형제들, 수협은행, AJ기업이 참여한다. 16일에는 한미약품과 수협은행이, 17일에는 우아한형제들과 AJ기업의 채용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잡코리아는 송파구청과 함께 하반기 신입 온라인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잡코리아

설명회에는 해당 기업 인사 실무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각 기업의 채용전형과 전략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사전에 접수한 질문을 토대로 20분간의 질의응

답 시간도 이어진다.

이를 위해 잡코리아는 온라인 채용설명회 사전질문을 접수하고 있다. 잡코리아 앱 또는 잡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채용설명회 페이지 내 사전질문 코너에 접속, 질문하고 싶은 기업에 궁금한 내용을 적으면 된다. 사전질문은 오는 13일 자정까지 접수한다.

특히 해당 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설명회에 사전 신청하면 잡코리아가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해당 행사 당일 별도의 안내도 해준다.

윤병준 잡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채용설명회 등 정보제공에 목말라 있는 취준생을 응원하고 구직활동을 돕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간호학과 나이팅게일 선서식

/호서대

호서대, 간호교육평가 연속 5년 인증

간호역량 갖춘 졸업생 배출 인정

호서대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한 ‘2020년도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2015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5년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과 학생의 성과를 지원·관리하기 위해 교육 성과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 여건 등이 국

가, 사회, 간호전문직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공식적으로 확인·인정하는 제도이다.

호서대는 이번 인증으로, 2015년 인증 이후 지속해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및 유지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국가, 사회, 간호 전문직이 요구하는 간호역량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음을 재차 인정받았다.

/이현진 기자

인천대-한국외대, 특수외국어 진흥 협력

몽골어 등 11개 언어 비교과 교육

인천대가 7일 한국외대와 특수외국어 진흥을 위해 협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수외국어는 태국어, 이란어 등 전 세계에서 소수가 쓰는 언어다.

두 대학은 인천대 학내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이란어 등 11개 언어에 대한 비교과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시범 사업으로 오는 14일부터 8주간 교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이란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힌디어를 교육한다. 차년부터는 11개 언어에 대해 일반인을 포함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인천대 글로벌언어문화원 원



(왼쪽) 김재영 인천대 글로벌언어문화원 원장, (오른쪽) 고태진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 /인천대

장은 “다국 국민이 함께 어우러 살아가는 송도 국제도시 특성을 고려하면 시민들과 외국인 간의 문화교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협약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인하대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모집

인하대 창업지원단이 ‘2020년 2차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경기·인천 지역 유망 초기창업기업을 1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7년 8월 21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창업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이다. 선정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받으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개월간 초기창업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인하대 창업지원단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발표평가, 현장확인을 거쳐 오는 10월 말에 모두 5개 기업을 최종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포털사이트 K-스타트업을 통해 접수한다.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총장직무대리에 김진우 교수 임명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 역임

덕성여자대학교 총장직무대리에 김진우 사회복지학전공 교수(사진)가 임명됐다.

학교법인 덕성학원 안병우 이사장은 7일 김진우 교수에게 총장직무대리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총장직무대리의 임기는 9월 6일부터 차기 총장 임명 시까지다.

김 총장직무대리는 서울대 사회복지와사회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사회정책학 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제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국장,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행정관, 인제



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을 거쳤으며 2009년 덕성여대에 부임했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지원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1일 11대 총장에 취임한 강수경 전 총장은 최근 덕성여대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5일자로 총장직에서 사임했다. /이현진 기자